# 스위스의 길.

## 문학가, 철학자, 예술가 이름 붙인 길들

### 마크 트웨인길부터 셜록 홈즈 길과 하이디 길까지
### 모파상과 쥘베른 피카소에게 영감준 고갯길
### 니체 길, 헤세 길은 물론 헵번 길도

국내외에서 '길'이 '관광 산업'과 접목된지는 꽤 오랜 세월이 지났다. 산티아고 길과 제주 올레길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산티아고 길은 순례자들에 의해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길 자체가 여행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 예이고, 제주 올레길은 걷기 좋은 길들을 선정하여 개발한 도보여행 코스로, 우리나라에서 길이 관광 상품으로 부각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사례다.

스위스에는 총 6 만 5 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이킹 트레일이 정비되어 있는데, 이 길을 모두 연결하면 지구를 한 바퀴 반이나 도는 것과 같은 거리다. 이 많은 길을 스위스에서는 어떻게 알려 가고 있을까? 꽃길을 조성하기도 하고, 호숫길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좀 더 특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명사'와 관련된 길을 만들거나, 길에 얽힌 명사들의 스토리를 알리는 방법이다. 이들 명사 중 많은 이들은 문학가 혹은 예술가들이다. 작가들이 걸으며 그들 작품에 영감을 주었던 길, 작품 활동을 하면서, 혹은 활동 중간에 쉬어가며 다시 힘을 얻었던 곳들에 그들 이름을 딴 길을 만들고, 이 길을 소개함으로써 이들의 팬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보다 새로운 의미의 길을 소개하고 이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 마크 트웨인길(Mark Twain Weg)**

마크 트웨인은 루체른(Luzern)을 두 번 여행했다. 첫 여행은 그의 풍자적인 유럽 여행기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였다. 두번째 여행은 그의 가족과 함께였다. 딸의 죽음에 대한 고통과 경제적인 곤란으로 조용히 지낼 곳을 찾은 것이다. 호숫가 마을, 벡기스(Weggis)에 자리를 잡고, 약 10 주 정도를 머무르며, 런던보다 훨씬 조용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트웨인은 벡기스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운 곳이라 했다. 그는 "리기 등반(CLIMBING THE RIGI)"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마크 트웨인 사망 100 주년을 맞이했던 2010 년, 마크 트웨인 테마 트레일의 첫 구간을 오픈했다. 벡기스에서 펠젠토르(Felsentor), 리기 칼트바드(Rigi Kaltbad), 리기 슈타펠(Rigi Staffe)을 거쳐 리기 정상까지 등산을 즐겼던 마크 트웨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총 10.4km 의 거리로 약 5 시간이 소요되는 길이다.

체르마트(Zermatt)에도 마크 트웨인 길이 있다. 리펠베르그(Riffelberg)에서 리펠알프(Riffelalp)까지 이어지는 약 1 시간 10 분 정도가 소요되는 길이다. 그의 작품, '리펠베르그 등반(Climbing the Riffelberg)'에 기록된 19 세기 알프스 풍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2. 문학가들에게 수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겜미 패스(Gemmi pass)**

발레(Valais) 주의 로이커바트(Leukerbad)와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주의 칸데르슈텍(Kandersteg)을 이어주는 알프스 고개, 겜미는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길이다. 겜미 고개를 넘었던 많은 작가와 예술과, 과학자들은 고개 중턱즈음에 위치한 슈바렌바흐 인(Schwarenbach Inn)이라는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어갔는데, 그 숙박일지를 보면 유명한 이름이 곳곳에 등장한다. 1779 년의 괴테, 1873 년의 쥘 베른(Jules Verne), 1933 년의 피카소가 겜미 고개를 넘어 여행했으며, 마크 트웨인도 이 고개를 넘은 뒤, 그의 책, '유럽 방랑기(A Tramp Abroad)'에서 이 산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마크 트웨인이 이 산장을 찾았을 즈음에는 이미 슈바렌바흐 인은 '도적들과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살인마들의 소굴'이라는 명성을 얻은 후였는데, 이에 영감을 받은 독일 작가, 자카리아스 베르너(Zacharias Werner)는 그의 소설 '2 월 24 일'에서 산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을 다루게 된다. 모파상 역시 이 산장을 배경으로, '산장(The Inn)'이라는 작품에서 섬뜩한 이야기를 풀어 냈고,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에 등장하는 배경으로 이 산장을 설정하기도 했다.

**3. 셜록 홈즈 길**

전통적인 향취가 물씬 풍기는 베르너 오버란트의 휴양지인 마이링엔(Meiringen)은 브리엔츠 호수 남동쪽에 위치한 하슬리(Hasli) 계곡에 자리한다. 셜록 홈즈와 그를 탄생시킨 코난 도일를 만날 수 있는 이 곳, 마이링엔– 하슬리베르그에는 셜록 홈즈 길이 있다.

부인과 함께 떠난 스위스 여행 중, 라이헨바흐(Reichenbach) 폭포에서 깊은 영감을 얻은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가 사망하는 곳으로 인터라켄 근교의 마이링엔(Meiringen)에 있는 이 폭포를 선택한다. 마이링엔에는 라이헨바흐 폭포로 향하는 꼬마 톱니 기차(funicular)가 있다. 셜록 홈즈가 마지막 결투를 하던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까지 운행된다. 이 지점부터는 로젠라우이(Rosenlaui) 계곡을 따라 즐거운 하이킹을 시작할 수 있기도 하다.

셜록 홈즈의 동상가 있는 박물관은 1991 년 셜록 홈즈 사망 100 주년을 기념하며 마이링엔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교회 지하에 개관하였다. 홈즈 팬들을 열광케하는 다양한 물건이 전시되어 있다. 마이링엔 마을 중심에는 셜록 홈즈의 길이 있어, 그에 대한 모든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

**4. 하이디 길**

하이디는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하이디를 창조한 작가, 요안나 슈피리(Johanna Spyri)보다 전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것은 틀림 없다. 2001 년은 요안나 슈피리 사망 100 주년이었다. 1880 년 하이디를 발표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라 현재까지 50 여개의 언어로 5 천만권 정도가 팔린 대단한 책이다. 요안나 슈피리는 스위스 동부의 예닌스(Jenins)에 머물다가 하이디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이엔펠트(Maienfeld)는 하이디의 집과 마을이 있던 곳이다.여름에는 마이엔펠트에서 하이디 알프(Heidi Alp)까지 5 시간짜리 하이디 어드벤쳐 길(Heidi Adventure Path)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먼저, 루바 숲(Luva Forest)과 피터와 목동이 살던 오두막을 지나 해발 고도 1,111m 에 있는 오흐젠베르그(Ochsenberg) 산에 오르면 하이디의 할아버지가 염소 떼와 함께 살았던 오리지널 하이디 알프(Heidi Alp)가 이 곳에 있다. 하이디 트레일이 이어지는 칼트보덴(Kaltboden)을 지나 예닌스(Jenins)까지 갈 수 있다. 예닌스에서 버를 타고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기다 보면 약 30 분 후 바드 라가츠(Bad Ragaz)에 있는 스파에서 조용히 하이킹을 마무리할 수 있다. 중간 중간에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가스트하우스 하이디호프(Gasthaus Heidihof)에서 잠깐 쉬어가며 음식이나 음료를 즐길 수 있다. 하이디 마을에서 점심 도시락을 마련해가도 좋다.

좀 더 짧은 코스를 택하고 싶다면 하이디 트레일을 따라가 보자. 마이엔펠트 기차역에서 브란디스 성(Schloss Brandis)을 지나 마이엔펠트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지는 하이디 길은 정겨운 산책을 즐기기 좋다. 마을 끝자락에서는 드넓은 포도밭이 펼쳐지는데, 좀더 가다보면 하이디의 우물과 작은 하이디 마을이 나온다. 하이디 마을에서 트레일은 로펠스(Rofels)를 지나 마이엔펠트로 돌아오게 된다. 총 소요시간은 약 1 시간 30 분 정도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생모리츠(St. Moritz)에는 TV 시리즈로 제작되었던 하이디에서 배경으로 사용되었던 오두막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하이디가 고아가 되는 장소로 촬영되었던 하이디 꽃길도 있다.

**5. 니체 길**

부유한 배경을 가진 니체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은 예쁜 것보다는 스위스 알프스의 거친 자연이었다. 실스 마리아(Sils Maria)의 산정호수와 소박한 마을들, 위엄한 바위 속에 터를 잡은 니체는 명상에 잠기곤했다. 평소, 심각한 두통과 구토, 안좋은 시력과 신경쇠약에 고통을 받았던 그는 '걷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주변 환경이 내면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가 머물던 샬레는 현재, 니체 하우스(Nietzsche House)로 운영되고 있다. 그가 살던 샬레에는 수십년 후, 안네 프랑크가 찾아와 두 해동안 묵어가기도 한 우연도 있었다.

니체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은 실스의 평원에서 카스테(Chastè) 반도까지 이어진다. 그림같은 호반을 따라 이어지는 길의 끝에는 니체의 돌이 있는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Thus spoke Zarathustra)"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돌이 놓인 지점이 실스에서만 여덟해의 여름을 보낸 니체가 가장 좋아했다는 지점이다. 길은 다시 빼곡한 낙엽송과 소나무 숲을 지나 실스 바젤지아(Sils-Baselgia)로 이어진다. 카스테 반도는 현재 자연 보호 구역으로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카스테는 과거 성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언덕 위에서 성의 잔해를 볼 수 있다. 실스 바젤지아부터 카스테 보트창고를 지나 실스 마리아까지 돌아가는 길은 유모차와 휠체어로도 갈 수 있는 길이다.

**6. 헤르만 헤세 길**

헤르만 헤세를 만날 수 있는 몬타뇰라(Montagnola)라는 마을은 루가노(Lugano)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가는 길에 헤세가 오후마다 들러 메를로 와인을 마셨다는 동굴 형식의 레스토랑 그로또 델 꺄비끄(Grotto del Cavicc)를 볼 수 있다. 몬타뇰라에는 이 레스토랑을 포함하여 헤세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헤세 길이 있는데, 표지판을 따라가며 헤세를 발견하는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살았던 까사 로사(Cassa Rossa), 헤세 탄생 100 주년 기념비, 헤세 박물관이 자리한 까사 까무찌(Casa Camuzzi), 헤세가 즐겨찾던 장소들, 그가 와인을 마시던 그로또, 헤세의 묘지를 만날 수 있다.

헤세가 루가노의 작은 언덕배기 마을 몬타뇰라(Montagnola)에 정착해, 1919 년부터 1931 년까지 살며 작품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현재의 박물관이 있는 까사 까무찌이다. 1997 년 7 월 2 일 헤세의 아들, 하이너 헤세(Heiner Hesse)의 도움으로 헤세의 120 세 생일을 기념하며 박물관을 오픈하게 된다. 박물관에는 헤세의 사진들과 그의 유품들이 가득한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헤세가 즐겨 그렸던 수채화다.

**7. 헵번 길**

루체른(Luzern)에 있는 뷔르겐슈톡(Bürgenstock) 언덕 위에는 같은 이름의 럭셔리한 리조트가 형성되어 있다. 1873 년에 지어진 이 곳은 유럽의 부호들과 헐리우드 스타들에게 인기있는 휴양지였는데, 오드리 헵번이 이 곳 뷔르겐슈톡 채플에서 1954 년 멜 페러(Mel Ferrer)와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었던 곳이다. 1960 년대에는 소피아 로렌이 남편과 이 곳에 있는 빌라 다니엘라(Villa Daniela)에서 오랜 기간 묵기도 했었다. 뷔르겐슈톡에는 펠젠베그(Felsenweg)라는 능선길이 있는데, 1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이 길을 따라 걸으며 헵번을 반하게 만들었던 이 곳의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숲과 꽃밭을 지나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기막힌 절경도 펼쳐진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함메취반트(Hammetschwand)라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파노라마를 감상해도 좋다. 단 1 분만에 152.8m 를 올라가는 이 엘리베이터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다.

**8. 파울 클레 길**

스위스를 대표하는 20 세기 화가, 스위스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화가, 파울 클레(Paul Klee, 1879~1940)는 베른(Bern) 근교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 화가이자, 음악가, 교사이자 작가, 철학가였던 파울 클레는 밝은 색상과 강한 빛의 효과에 집중한 작품 활동으로 유명하다. 유럽 지역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큰 명성을 얻었던 파울 클레는 1932 년 나치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한 후, 고향 베른으로 다시 돌아와 자기 작품의 단순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1940 년 사망까지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고 한다. 그를 위해 바쳐진 아름다운 건축물, 파울 클레 센터(원칭 쩬트룸 파울 클레: The Zentrum Paul Klee)가 2005 년 6 월, 스위스 베른에서 탄생했다. 넓은 벌판의 지형에 살포시 기대어 있는 세 개의 물결 형태로 이루어진 이 건축물은 유명한 이태리 건축가 렌쪼 피아노(Renzo Piano)의 작품이다.

건물 밖으로 난 초록 들판 위의 산책길과, 뒤편의 조각 공원 역시 파울 클레 센터 프로젝트의 일부로,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바로 옆 쇼스할덴(Schosshalden) 묘지에는 파울 클레와 그의 가족의 묘비도 있어, 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클레의 발자국(Steps for Klee)'라는 브로셔가 있는데, 여기에는 박물관 주변에 뻗어난 클레 작품명을 따서 만든 길과 계단 등 18 곳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베른에서 파울 클레가 얼마나 존경받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바젤(Basel)의 다섯 가지 명사 길**

바젤에는 다섯 가지 명사 길을 만들어 각각 다른 색깔과 번호를 부여하고 관광객들이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안내하는 길이 있다. 에라스무스 길(Erasmus walk), 파라셀수스 길(Paracelsus Walk), 부르크하르트 길(Burckhardt Walk), 플라터 길(Platter Walk), 홀바인 길(Holbein)이 그것으로, 이 길들을 안내하는 지도도 특별히 제작해 바젤의 역사와 문화를 따라가는 여정을 보다 편리하게 돕고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